

신뢰할 수 있는 상아질 접착제의 선택 (Selection of the reliable dentin adhesive)



최경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보존과 수련
- 경희대학교 대학원(박사)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임상강사
- 오레곤주립대학 방문교수
- 로스캐롤라이나대학 방문교수
- 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 주임교수/과장

심미수복에 대한 기대와 수요의 증가는 복합 레진과 상아질 접착제를 포함하는 접착성 수복 재료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자연치의 재연성, 우수한 물리적 성질, 최소의 치질 삭제 및 안정된 결합능력의 부여를 통하여 구치부에서 아말감을 대체하고 전치부에서 도재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법랑질에 대한 접착은 산부식을 통한 표면의 미세 다공성을 부여하고 접착성 단량체가 침투하여 미세기계적으로 유지되므로서 임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아질은 많은 유기질을 포함하는 상아세관의 미세구조와 광화 및 습윤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접착의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구조로 남아있다. 상아질에서 혼성층의 형성에 의한 3단계 상아질 접착제의 도입으로 결합능력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지난 10년간 접착과정이 단축되고 간편화되어 사용자는 편의성을 갖게 되었으나 수 많은 상아질

접착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임상에서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하는 것은 항상 숙제로 남아 있다.

단일 또는 2단계의 접착과정(5~7세대)을 갖는 접착제의 편리함 이면에는 기술적 민감성과 함께 최근, 복합레진과 호환성 및 접착의 내구성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접착제는 접착능력의 개선을 위해 모두 특징적 기능성 산성단량체를 포함하고 중합 후에도 잔류산이 남아 자가중합 복합레진 또는 레진시멘트와 부적합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접착과정의 단축은 수요자인 치과의사의 요구이며 발전의 경향임에 틀림없다.

본 강의에서는 접착제의 올바른 선택기준과 함께 법랑질 접착, 습윤접착, 자가부식형 접착제, 접착제의 호환성, 상아질 접착제 사용시 임상적 고려사항 등 최신의 경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